

Highlights

- ADLM 2025서 외상성 뇌손상 현장진단 플랫폼 개발 성과 발표...북미 진단 시장 진출 가속화
- APAC 의료·진단 시장 혁신 허브 WHX Labs Kuala Lumpur 2025 참여

■ ADLM 2025서 외상성 뇌손상 현장진단 플랫폼 개발 성과 발표...북미 진단 시장 진출 가속화

프리시전바이오는 미국 시카고에서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글로벌 의료·진단 전시회 'ADLM 2025(Association for Diagnostics & Laboratory Medicine 2025)'에 참여하여 외상성 뇌손상 현장진단 플랫폼 개발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고, 북미 가망 거래선과의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.

ADLM은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진단업체들과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진단 전시회이자 전시, 교육, 네트워킹을 아우르는 종합 행사로,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입니다.

포스터 발표 세션에서는 외상성 뇌손상 진단에서 고비용 영상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혈액 기반 현장진단 플랫폼 'Exdia TRF-LFIA'의 기술적 성과를 선보이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.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북미 및 중남미 지역의 주요 업체들과 제품 유통 및 판매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면서, 북미 진단 시장 내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습니다. 이번 전시 참여는 현장진단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

■ APAC 의료·진단 시장 혁신 허브 WHX Labs Kuala Lumpur 2025 참여

프리시전바이오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'WHX(World Health Expo) Labs Kuala Lumpur 2025' (舊 Medlab Asia)에 참여, 면역진단 및 임상화학 진단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.

WHX Labs Kuala Lumpur는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(APAC)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 및 진단 분야 전시회로, 체외진단 및 의료기기를 비롯해 의료·진단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적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국내 기업들도 다수 참가하여 매년 신규 네트워크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
프리시전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자사 제품에 대한 국가별 수요를 확인하고, 현지 병원 및 진단기기 등 국가별 유통 파트너십 확대와 신규 수출 계약 발굴을 통해 아시아 지역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

